

중등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교수-학습 방안

변 중 민*

목 차

- I. 시작하며
- II.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교육 환경
- III.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 IV. 언어기능별 영어 교수-학습 방안
- V.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과 운영을 위한 제언
- VI. 맺으며

I. 시작하며

2000~2004년에 걸쳐 초·중·고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7차 교육과정은 개성과 적성이 다르고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단계형, 심화보충형으로 나뉘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는 열린교육 체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습능력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다는 측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면에서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은 열린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많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왔고, 1995년부터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어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듯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안은 채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그 현실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과 재량활동을 위한 교과별 전용교실의 확보문제, 교재 및 교구개발의 문제, 평가의 획일성 문제 등이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중1부터 고1까지 적용되는 단계형 수준별 영어교과와 심화·보충형 수준별 영어교과, 그리고 고2, 3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심화선택과목을 어떻게 차별화 시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수준별로 학습시키느냐의 문제이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3단계)부터 6학년(6단계)까지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7단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단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 지침서에 따르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1개 학년을 1단계로 하되,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단계 a, b를 두어 운영을 하며, 동일 하위단계 내에서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어작문’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택교과는 학교나 교사의 선택이 아닌 학생의 선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 스스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토록 단계별, 심화·보충형별, 선택교과별로 수준이 다양화되어 있는 영어교과를 어떻게 차별화 시켜 수업안을 작성하고, 교과서를 선택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에 대부분 교사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육부 고시로 나온 7차 교육과정 지침서에 각 수준별 교과에 대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지침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화시켜 실행에 옮기는 문제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II.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교육 환경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 특성상 열린교육의 개념 및 특징과 유사한 면이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생이 교수-학습과정의 주체가 되어 학습 과목 및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준별 교육과 열린교육은 공통의 교육목표를 지니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지침서에 명시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교육을 권장하며,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을 많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충학습은 “개별 및 소집단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며,” 심화학습은 “자기 주도적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열린교육”과 “학생중심의 수업”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학습, 자기주도학습, 협동학습, 학습자 중심수업 등의 교수-학습 방법은 열린교육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열린교육에서는 전통식 교육과 달리 학습자를 교수-학습과정의 주체로 간주하고 개별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Horwitz(1979)는 열린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며 학습공간의 개방성과 융통성, 학습자의 선택권,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통합 교육과정의 운영, 소집단 수업활동 지향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다. Marshall(1981)과 Noddings 및 Enright(1983)도 열린교육의 개념적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활동,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학습자의 선택권 및 자율성 부여,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과 교사의 밀접한 상호작용 등을 들고 있다. 강영은(1999)은 미국식 열린교육을 예로 들며 “공간의 개방과 프로그램의 개방,”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열린교육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1995)의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이미 열린교육을 통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교육과정 개편원칙의 하나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 학습,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교육 체제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준별 교육과정은 종전의 획일적이고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과 흥미에 맞게 교수-학

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열린 교육환경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열린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수준별 교육과정은 성공할 수 있다. 열린교육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은 자칫 학습진단에 의한 능력별 이동수업으로 전락되어 학습자 중심, 개별성, 자율성 등의 기본취지가 퇴색되어 버릴 수 있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여건과 환경의 열악함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판단된다.

Ⅲ.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1. 공간환경의 문제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과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실환경이다.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에 따른 교과별, 수준별 전용교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실이나 특별활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에 맞게 지어진 현재의 교실형태로는 이런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국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동식 수업을 위해 대부분의 교사(校舍)가 단층으로 지어졌고, 과목별로 건물 이 블록화 되어 매시간 학생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공간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과별 교사실이 마련되어 동일교과 교사들끼리 수준별 교과지도에 대한 토의와 논의가 수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상담, 교재선택, 학습자료 구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교과별 교사들의 자율적인 논의와 토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교실구조의 상황에서 교과별, 수준별 전용교실과 교과별 교사실을 제공하기에는 가용공간이 태부족이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적당한 구조를 지닌 교실의 신축 및 증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실환경이 갖추어질 때까지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과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력 구성의 문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이다. 영어교육이 올바르게 되려면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언어훈련 기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선을 유지해야 하며, 아무리 많아도 3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충반이나 심화반의 경우는 10~15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실수의 부족도 문제지만 교사 인력의 부족이 더 문제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수준별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학급당 균일하게 40~50명의 학생 수를 유지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특히 영어교과는 허울뿐인 실패로 끝날 것이다. 영어과 수준별 수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가 절대적이고, 이렇게 하려면 현재 영어교사 인력이 1/3 이상 증가해야 할 텐데, 이 인력증원과 배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어교사 인력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수준별 영어 교수-학습의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어교사들의 연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종전의 교수-학습 이론과 교직·교양 과목 중심의 연수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원어민 강사로부터 영어회화를 배우는 식의 실용영어 중심의 연수도 그 환경과 실효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요컨대 영어교사 연수의 형태가 수준별 교수-학습의 차별화를 전제로 한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능적 연수가 영어교수법을 전공한 원어민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개발에 대한 교사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구교사 또는 협력교사제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과목의 다양한 학력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별 배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개별적 상담을 담당하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 및 학습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구입을 도와 줄 수 있는 연구교사 또는 협력교사의 채용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각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협력교사(mentor)제가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잘 입증하여 준다.

3.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현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준별 교과목은 엄격한 의미의 미국식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최진황과 진경애(1998)가 정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 학년(반)내에서 학습목표 성취에 따라 심화와 보충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한다. 즉 기본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서는 보충학습을 하고 기본학습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열린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중학교 1학년(7a단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10a단계)까지 적용되며, 각 단계에서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하여 재이수를 한다. 단계내에서도 학력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도 각 하위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도 상급단계로 진급을 원한다면 방과후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특별 보충을 시켜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되며, 자신의 적성, 흥미, 진로, 수준에 적절한 과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학습한다.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나타난 바를 중·고등학교 영어과목에 적용시켜 보면, 중 3년간의 영어는 6단계(7a~9b)로 나누어지고 고1년은 2단계 그리고 고2, 3년은 5개 과목중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1학년은 균일한 기준으로 영어학급이 편성될 것이고 각 반별로 학습 목표에 미달되는 학생을 위한 보충반과 학습목표를 초과하는 학생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충학습을 받고도 일정의 학습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이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운영과정에서 학급 단위가 될지 학년 단위가 될지 모르지만 현 7차 교육과정 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사실상 보충, 보편, 심화 3개 수준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구분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열반 편성의 차원보다, 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아니라 한 단계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실시해 성적을 부여하고 “재이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학습 능력의 차이가 다양한 학생들을 한 학급에 편성해 놓고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시키고 평가는 획일적으로 실시해 성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그 실효성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7차 교육과정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

학생들의 수준차를 인정해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수-학습의 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학습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하려면 객관적인 평가와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동일한 단계에서 3-4개 수준, 예컨대 미국처럼 Standard(보통), Academy(양호), Honor(우수), AP(심화) 정도로 나누어 학급편성을 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 교재, 자료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 성취도 측정을 하여 단계별, 수준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IV. 언어기능별 영어 교수-학습 방안

7차 교육과정 외국어 분야 지침서를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단계적 성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학년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은 이전의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듣기, 말하기의 음성언어 기능에 치중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읽기, 쓰기의 문자언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4대 언어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영어의 유창성을 성취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영어학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기능, 즉 듣기와 읽기는 처음부터 모국어를 개입시키지 않고 학습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할 것이고, 표현기능, 즉 말하기와 쓰기는 모국어를 바탕으로 영어로 표현하는 기술을 통해 점차 목표언어인 영어로만 표현하는 기술로 확장시켜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 바람직하다.

1. 영어 듣기 지도 방안

수능시험에서 듣기가 포함된 이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가장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인 것은 영어 듣기 능력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6년간 시험과 입시를 위해 꾸준히 듣기 연습을 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4대 언어 기능 모두가 마찬가지로, 듣기 능력만큼 학습자가 투자한 시간의 량

과 정비례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4년은 물론 중·고등학교 6년에 걸쳐 듣기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은 가능한 한 학생들이 영어청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흥미를 자극해 주는 방법 이외에 특별한 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 수업시간에 듣기 연습을 시킨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영어청취가 잘 안되는 원인, 간단한 발음상의 특징, 좋은 듣기 자료의 소개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전이나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듣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성방송 시설이나 audio-video 자료를 구비하여 손쉽게 영어에 청각기능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집에서도 듣기 훈련에 흥미를 잃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듣기 과제를 부여하거나, 좋은 자료를 소개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잘 들리지 않는 언어로 일정 시간 이상 듣기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많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시각적 감각에 대한 집중력이 강한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의 경우 각종 만화영화나 코미디 종류의 비디오 청취가 효과적일 것이고, 중학생의 경우는 일상 생활의 대사가 많이 나오는 흥미 있는 영화나 토크쇼 종류의 비디오 자료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명작 중심의 영화와 연설문 종류의 오디오 자료가 청취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지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특정의 오디오 자료를 반복해서 청취함으로써 영어가 지닌 음성학적 특성에 청각기능이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영어 방송과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audio-video, CD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별, 수준별 청취목록을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에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구입해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어학훈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영어 말하기 지도 방안

언어 습득 이론상 듣기가 제대로 되면 말하기는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모국어로 언어를 배울 때 적용되는 이론일 뿐, 모국어를 습득한 후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배우는 언어습득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듣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말하기 훈련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병어리나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듣기와는 별도로 말하기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고교와 대학 입시에 듣기 평가가 도입된 이후 상당량의 듣기훈련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듣기실력은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으나 말하기는 전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훈련이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아내고 원어민과의 대화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 모국어인 한글의 사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중학교 이후의 말하기 훈련 또한 실제 영어로 대화를 나눌 상대와 기회가 없고 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취하기에 가장 어려운 언어기능이다. 수업시간에 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으로 정한 것도 기본적으로 영어수업시간 만이라도 영어로 말하기 훈련을 시키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교실영어라고 하는 것도 그 범주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영어회화 수업을 전담시킨다는 것도 현실여건상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국어 사용체제가 굳어진 이후의 영어 말하기 훈련은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영어회화, 특히 영어 말하기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지만 결국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각 대학이 도입한 방식은 원어민 강사진을 대거 채용해 영어회화 특별강좌를 담당하게 하거나, 나아가 정규 교양영어 강좌를 담당토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의 경우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와는 별도로 외국에서 TESOL을 전공한 한국인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문법성이 가미된 영어회화 지도를 한 결과 그 반응이 매우 좋으며, 지난 11월 10~11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5회 전국 국·공립대학교 어학원장 협의회에서 담당 강사 중 한 명이 사례 연구발표를 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인이 말하기 중심의 영어회화를 가르칠 경우 원어민의 영어회화 지도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어민이 가르칠 경우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듣고 말하기의 반복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게 되겠지만, 한국인이 영어회화를 가르칠 경우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문장을 중심으로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쌓는 가운데 영어가 지닌 문법체계, 문장구조적 특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생활영어 표현방식의 비교 등을 통해 느낌이나 생각을 영어 문장화시켜 단순한 표현에서 복잡한 표현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인 담당 영어회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매시간 일정 내용과 분량의 학습내용을 한글로 주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

랍직하며 이 과정을 통해 영어가 지닌 문법체계, 구조적 특성, 문화의 차이 등을 설명하면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80년대 영어회화 교재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던 English 900과 같은 교재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하여 다시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역시 *English 900*의 저자 코넬리우스 박사가 저술한 *Active Basic Communication*과 같은 교재를 실제 영어회화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영어 읽기 지도 방안

우리의 영어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언어로서 영어의 4대 기능 중 가장 성취 목표에 도달하기 쉬운 영역은 읽기 기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읽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 능력이 기대치에 도달하면 나머지 언어능력, 즉 듣기, 말하기, 쓰기를 정복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Mikulecky와 Jeffries(1996)는 영어의 전반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기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Reading helps you learn to think in English.

Reading can enlarge your English vocabulary.

Reading can help you improve your writing.

Reading may be a good way to practice your English if you live in a non-English-speaking country.

Reading can help you prepare for study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Reading is a good way to find out about new ideas, facts, and experiences.

읽기 능력이 목표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영어로 사고하는 습관이 형성되게 되고, 영어 읽기를 통해 어휘력을 확장시키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읽기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단어 하나 하나와 문법적 지식을 이용해 문장단위로 번역하는 습관이 유지되는 한 영어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영어청취가 제대로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도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소위 직독직해의 습관이 아닌 번역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청취력은 물론 쓰기 능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과제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소위 직

직독직해의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며, 이는 7차 교육과정 지침서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직독직해의 습관은 어휘력이나 문법적 지식 또는 문장구조의 분석능력과는 무관하다. 단지 습관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교사가 영어문장을 읽으며 일일이 번역해 주고 세세한 단어의 의미 및 문법을 설명해주는 식의 주입식 수업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직독직해 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다음 두 가지가 실천 가능한 방법이다.

첫째, 교사가 영어문장을 하나하나 번역해 주며 설명하는 번역식 교수-학습 방법을 지양해 가능한 한 읽기 쉬운 자료를 선택해, 읽기 전 활동(Pre-reading Activity)과 읽기 후 활동(Post-reading Activity)을 강화해 직독직해를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택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의무감이나 시험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별로 영어독서실(English Reading Room)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 영어 쓰기 지도 방안

과거에 비해 근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영어 쓰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문법교육이 소홀하고 쓰기 공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언어로서 영어의 4대 기능 중 문법지식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은 말하기나 읽기가 아니라 쓰기이다. 어차피 영어로 쓰기가 일상화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초급단계의 영어 쓰기는 문법적 기능에 맞게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연습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법 지식이 영어 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쓰기를 통해 문법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지식은 말하기나 쓰기를 통해 활용 가능할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영어 쓰기 학습은 적어도 문장의 기본 5형식 범주에서 한글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문장구조에 대한 인식능력을 확고히 해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고등학교에서의 쓰기 공부는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영어로 옮기는 자유 영작(Free Composition) 학습을 시키고, 그 오류에 대해 교사가 세세한 지적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영어 쓰기 학습은 단순히 쓰기 능력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문법이나 문장구조 파악 능력을 키우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V.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과 운영을 위한 제언

이상에 논의된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교육 환경의 관계,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현실적 과제, 그리고 언어기능별 영어 교수-학습방안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영어과)의 효율적 시행과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실환경의 개선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각 단계별, 수준별 전용교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사(校舍)가 지닌 건물구조의 한계와 교실 수의 부족을 감안해 최대한 전용교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간 배치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시간 학생들의 집단 이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단계 및 수준별 전용교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전용교실 뿐만 아니라 교과별 교사실을 확보하여 동일 교과 또는 동일 단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항상 정보를 교환하고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의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사인력의 증원 및 연수 프로그램의 혁신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영어교사 인력으로는 그 수가 턱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유능한 교사를 충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증원에 못지 않게 수준별 영어수업을 차별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어교사 협의회나 대학 외국어교육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TESL 또는 TEFL을 전공한 원어민 강사로부터 실제 수준별 영어과 지도를 위한 기술적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체험적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서로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개가식 영어 학습자료실 및 영어 독서실(English Reading Room)의 운영

학생들의 개성과 학습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은 열린 교육환경이 구비되어야만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 학습능력의 차이가 많고 개성이 다양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고 교사가 활동자리(Learning Center)를 이용하거나, 또는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보충·심화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조차 시행에 문제 많은 활동자리 중심의 열린교육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능력의 차이가 많고 흥미나 관심도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한 안내자이자 협력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그 활용방법을 조언하는 교수-학습 방안이 현실적 여건 하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이런 차원에서 영어의 음성언어적 기능, 즉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개가식 영어학습 자료실의 운영이 요구된다. 이 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듣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청취, 각종 audio-video 및 CD 학습자료, 기타 ESL 또는 EFL 관련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비치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학습자료를 대여해 집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읽기 자료를 비치해 학생들이 즐거움을 위해 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영어독서실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4. 원어민 교사의 활용

심화반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 신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학교에 한 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어교사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5. 수준별 학급 편성과 차별화된 평가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한 학급에 모아 놓고 담당교사가 재량에 따라 보충, 보편, 심화로 구분해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학습은 보충, 보편, 심화로 구분해 실시하고 평가는 동일기준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교수-학습한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기본인데, 각기 다른 내용의 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차를 고착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려면 동일 단계의 학생들을 3개 수준, 예컨대 보편(Standard), 우수(Academy), 심화(Honour)로 구분하여 학급편성을 하되, 그 편성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이 존중되는 차원이어야 한다. 평가 역시 단계별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수준별 평가를 하여 수준별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준별 차이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적 산출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상담교사 및 협력교사제의 도입

7차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학생들, 특히 고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의 선택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들의 신상에 관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학습능력의 점검과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사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각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학습자료를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는 교과목별로 적어도 한 명씩의 협력교사(mentor)를 채용해 교사들의 교재 선택 및 학습자료 구입 등에 대해 전문적 소양을 갖고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교사의 자율성 확보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교사들에게 동일 학급 내에서의 보충·심화 구분, 재량 활동 시간 부여 등,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재량권은 의무와 책임만 부여할 뿐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에서는 교사들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시행되려면 교사들에게 교재 선택, 교수-학습안 작성, 평가 도구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나 각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사들에게 자율적 교수-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교재도 교육부가 주

도하여 제작한 검인정 교과서 이외 국내외서 발행되는 다양한 ESL 또는 EFL 교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이수의 기준 및 수준별 학급 편성, 평가 도구의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영어과 교사들의 합의된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VI. 맺 으 며

7차 교육과정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사조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식 수준별 교육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개별화 교육과 창의력 개발로 대표되는 미국식 진보주의의 열린교육은 그 성패여부를 놓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용길(1998)의 글에 따르면, 카네기 재단의 미국교육 관련 보고서 「위기에 처한 국가」는 미국 학생들의 현저히 퇴보된 학업성취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엉망인 교육방법과 제도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행위는 나라를 망치려는 이적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248). 또한 열린교육의 철학적 명분을 제공한 스포크(Spoke) 박사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육아이론이 미국 아동들을 자유방임적으로 키우게 만든 오류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다(254).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뜯어고치고자 마련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은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의 공용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일 수도 있다. 문제는 문화와 사회의 구조가 다르고 사고방식과 가치체계가 다른 우리의 현실에 미국식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교육사조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느냐이다. 이런 측면에서 7차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내적 문제보다 교육외적 문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환경과 인력구성을 갖추는 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그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화합을 바탕으로 실천이 가능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기여하는 마음의 자세를 키울 때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은. (1993). 중등영어 학습을 위한 열린 수업 개혁 방안. *영어교육*, 54(1), 125-157.
- 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 (1997). *외국어교육과정 (I) (II)*.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최진황, 진경애. (1998).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RDM 98-6-2), 한국교육개발원.
- 황용길. (1998). 「미국식 열린교육으로의 개혁」은 전학생들의 돌머리化, 국가의 강통化를 초래한다. *월간조선 12월호*, 242-305.
- Horwitz, R. (1979).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open classroo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1), 72-73.
- Marshall, H. (1981). Open classroom: Has the term outlived its usefuln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2), 183-185.
- Mikulecky Beatrice S., & Jeffries Linda. (1996). *More Reading Power*. Addison Wesley.
- Noddings, N., & Enright, D. (1983). The promise of open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22(9), 184.